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남측 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평화의 집』에서 만찬을 마련하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리수용동지, 김영철동지, 최희동지, 김여정동지, 리선권동지를 비롯한 수행간부들, 수행원들과 함께 만찬에 초대 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남측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만찬을 마련하였다

임종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여러 정당 대표들,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연고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남측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평화의 집』에 도착하신 리설주녀사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가 따뜻이 맞이하였다.

만찬에 앞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께서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환담을 나누시며 정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성의껏 만찬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문재인대통령 내외분께서는 만찬장앞에서 북남인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였다.

이어 수뇌분들께서 만찬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판문점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두 수뇌분을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만찬에서는 먼저 문재인대통령이 환영연설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남측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여러가지 토끼들을, 우리측에서는 옥류판의 평양행면을 연회장에 올려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만찬은 시종 열속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만찬에서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축하하는 북파 남의 예술인들의 공연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작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평화의 집』에서 나오시자 북남인사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울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약의에 마련된 초대석에 등단하시여 남측에서 준비한 환송공연 『하나의 봄』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은 공연이 끝난 후 북남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은 뜨겁게 손을 잡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며 작별인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측인사들의 환송을 받으시며 『평화의 집』을 떠나시였다.

역사적인 판문점상봉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땅우에 기이이 존엄높고 무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회같은 민족애에 드림없는 지주의지의 발현이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본사정지보도반

